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Relationships among Mother's Thinking Style,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문 태 형**
Moon, Tai Hyong

Abstract

A total of 227 children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thinking style and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tween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Data were gathered with Thinking Style Scale Questionnaire, Parenting Self-efficacy Scale, and Social Competency Scale: Preschool.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s were used for data analys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other's thinking styles and parenting self-efficacy and betwee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emerged. That is, mothers whose thinking styles were legislative, hierarchical, and liberal had more parenting self-efficacy, and children whose mothers felt more confidence in their parenting had a higher degree of social competence.

Key Words : 사고양식(thinking style), 양육효능감 (parenting self-efficacy), 사회적 능력 (social competence)

* 접수 2002년 8월 31일, 채택 2002년 10월 15일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유아교육과 부교수, E-mail : thmoon@daegu.ac.kr

I. 서론

최근에 인간행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인지적인 영역과 정의적인 영역의 접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Cantor & Kihlstrom, 1987; Sternberg, 1997; Sternberg & Grigorenko, 1993). 인지적 능력만으로는 인간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우며, 이들 인지적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지적 수행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하여 인지적 능력과 정의적 영역간의 완충적 기능을 하는 요인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그 중 인지양식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인지양식이란 다양한 반응이 가능한 복잡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의 전형성을 의미한다(Grigorenko & Sternberg, 1995; Messick, 1994; Royce & Powell, 1983). 또한 인지양식은 성격을 인지 능력과 관련지우는 통합적인 구성개념이며(Royce & Powell, 1983; Sternberg, 1997), 내용 영역을 초월하는 조직적, 통제적 메카니즘으로 인지적인 면과 성격적인 면을 동시에 표현한다.

인지양식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능력심리학이 주장하는 양적 개인차와는 달리 분류적 범주의 개인차이다. 어떤 사람은 광범위한 지각적 범주를 사용해야하는 과제에서는 뛰어나지만 협소한 지각적 범주를 사용해야하는 과제에서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인지 양식의 개인차의 예이다. 이처럼 인지양식이란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것을 표현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선호하는 방식이며, 특정한 능력이 표현되는 것을 중재하기 때문에 가치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는 힘들다.

인지양식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에는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심리학자들과 교육연구가들로부터 주된 관심을 끌어온 것은 장독립적 인지양식 대 장의존적 인지양식(Witkin & Goodenough, 1977)과 그리고 반성적 인지양식 대 충동적 인지양식의 구분(Kagan, 1965)이다. 다소 최근에 Sternberg(1997)와 그의 동료(Ferrari & Sternberg, 1998)는 또 하나의 사고양식이론으로 시민정부의 여러 다른 기능과 형태를 모형으로 한 정신자치제이론(sytle of mental self-government theory)을 제안하였다. Sternberg(1997)는 사고양식이 특정능력이라기보다 개인이 상황적 요구에 적응해 가는 특징적인 습관이나 선호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능력 수준이 같은 사람들도 각기 다른 사고양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Sternberg(1997)의 정신자치제이론은 기능, 형태, 수준, 영역, 그리고 성향의 5범주와 이들 범주아래에 총 13개의 하위양식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기능범주에는 입법, 행정, 사법의 3요소, 형태범주에는 군주적, 위계적, 과두적, 무정부적의 4요소, 수준범주에는 전체인 것과 지역적인 2요소, 영역범주에는 내부적과 외부적의 2요소, 성향범주에는 자유와 보수의 2하위요소로 세분된다. 이들 13개 하위요소들은 각기 다른 특징들을 지니는데, 예를 들어 행정부적 사고양식은 규칙이나 안내지침들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거나 짜여진 구조나 지침에 따라 일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성을 의미하며, 사법부적 사고양식은 사물들을 비교하거나 질, 가치효율성에 관한 판단·평가를 선호하는 사고유형을 일컫는다. 또한 형태범주의 위계적 사고양식은 여러 과제, 과제 시행순서, 기간 등의 결정을 선호하며, 일의 우선

순위와 중요성을 설정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향성을 말하며, 성향범주의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은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해결책을 선호하며, 전통에 도전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는 경향성을 일컫는다[사고양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ternberg(1997)를 참조할 것].

한편, 인지양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학업적 장면(Sternberg, 1997)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해결 장면이나 사회적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예로서, 장독립적인 사람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으로 인해 타인에게 무관심하지만, 장의존적인 사람은 사회지향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에 민감하며 사려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다. 집단동조나 대인관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장독립적인 사람은 장의존적인 사람에 비해 높은 자율성과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박아청, 1997). Sternberg(1997)의 정신자치제 이론에 근거하여 사고양식과 사회적 능력을 설명하면, 전체적인 사고양식을 지닌 사람은 사회적 관계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려 할 것이며, 지엽적인 사고 유형을 지닌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세부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또한 입법적 사고양식을 지닌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창의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모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며, 행정적 사고양식유형의 사람은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관습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인간 관계를 해석하려 할 것이다. 이처럼 5개의 범주에서 상이한 사고양식의 소유자들은 서로 다른 사회적 관계 양상을 보일 것이다. 즉, 개인의 사고양식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관계를 전개하리라 가정할 수 있다.

사고양식이 사회적 관계능력과 연관된다면, 어머니의 사고양식은 자식과의 사회적 관계 능

력으로 정의될 수 있는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 혹은 양육효능감과 어떤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사고양식의 유형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 혹은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Schaefer 등(1959)의 양육태도모형에 의거하여 볼 때 애정적-자율적인 부모는 자율적인 기능이 풍부한 입법적인 사고양식을 지녔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양식과 양육태도 혹은 양육효능감간의 이러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 대해 경험적 자료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한편 사회적 능력이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해 나갈 수 있는 능력(Ford, 1982)이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설명해주는 변인 중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발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에 관한 것들이었으나, 최근에 양육효능감과 같은 양육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Coleman & Karraker, 1998; Gondoli & Silverg, 1997; Teti & Gelfand, 1991).

Bandura(1997)의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 적용시킨 양육효능감은 다양하게 정의된다(Dorsey, 1999; Johnson & Mash, 1989; Scheel & Rieckman, 1998; Teti & Gelfand, 1991).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Dorsey(1999)는 아동의 최적의 발달과 관련된 가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부모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그리고

Teti & Gefand(1991)는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효능감은 다음의 이유 등으로 해서 어머니와 아동의 안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판단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더욱 많이 충고, 감독하거나, 자식들에 대해 훨씬 반응적이며(Bogenschneider, Small, & Tsay, 1997), 학교 숙제를 돕는 등의 장려적(promotive)이며 예방적(preventative)인 양육전략을 사용한다(Elder, Eccles, Ardel, & Lord, 1995). 또한 높은 수준의 양육효능감은 아동의 보다 나은 사회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결과(Rodrique, Geffken, Clark, Hunt, & Fishel, 1994)도 양육효능감의 중요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뿐만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인지 능력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Bornstein et al, 1998, Coleman & Karraker, 1998, 최형성, 2001, 재인용).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지를 밝힌 연구는 그리 흔치 않다. 그러므로 이 두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진술하면 첫째, 우리나라 어머니의 사고양식(Sternberg의 정신자치제

이론에 입각한 사고양식유형에 근거하여)은 어떠한 유형을 지니며, 이들 사고양식이 양육효능감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는가? 둘째, 어머니의 사고양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양육효능감이 그들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특히 첫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어머니들의 사고양식이 어떠한 유형을 띄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Sternberg(1997)가 한 개인은 단지 하나의 사고양식만을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그리고 적절한 유연성을 갖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사고양식과 인지양식이라는 표현은 교육 및 심리학 분야에 일반적으로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에, 본 연구에서도 사고양식을 인지양식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며, 이의 분류는 Sternberg(1997)의 정신자치제이론에 근거한 5개 범주, 총 13개 하위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국내외(Bornstein et al, 1998, Coleman & Karraker, 1998, 최형성, 2001) 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전반적인 양육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으로, 그리고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역시 국내외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자기중심성, 협조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정의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 경북에 소재한 유치원생 227명(성별 : 남아 112명, 여아 115명; 연령별 : 4세 105명, 5세 122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하 106명, 전문대졸 이상이 121명이다.

2. 검사도구

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최형성(2001)이 Allen(1993), Dorsey(1999), Johnson & Mash(1989) 등의 연구결과들을 참고로 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7문항), 의사소통능력(9문항), 학습지도능력(6문항), 훈육능력(4문항)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 총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 신뢰도는 전반적인 양육능력이 $\alpha = .96$,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alpha = .93$, 의사소통능력이 $\alpha = .95$, 학습지도능력이 $\alpha = .94$, 훈육능력이 $\alpha = .90$ 이었다.

2) 사고양식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사고양식검사는 Sternberg의 Thinking Styles Questionnaire Short Version을 윤미선(1997)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5개의 하위척도 총 13가지의 스타일로 세분되어 있으며, 응답자가 제시된 문항들을 읽고 전체 65문항에 대해 자신의 평소 성향을 5점 Likert 척도로 반응하게

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 사고양식 각 하위요소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입법부적 $\alpha = .64$, 행정부적 $\alpha = .68$, 사법부적 $\alpha = .71$, 군주적 $\alpha = .65$, 위계적 $\alpha = .61$, 과두적 $\alpha = .59$, 무정부적 $\alpha = .59$, 전체적 $\alpha = .59$, 지역적 $\alpha = .53$, 내적 $\alpha = .71$, 외적 $\alpha = .72$, 자유주의적 $\alpha = .79$, 보수주의적 $\alpha = .73$ 이었다.

3) 사회적 능력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적 능력검사는 Iowa Social Competency Scales : Preschool (ISCS : P) 중 어머니용 질문지를 번역, 수정하여 김정아(1990)가 사용한 것을 사용하였다. ISCS : P는 모두 29개 문항으로서 사회적 활동성, 과민성, 안정성, 자기중심성, 협조성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된 사회적 능력검사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사회적 활동성 $\alpha = .90$, 과민성 $\alpha = .77$, 안정성 $\alpha = .47$, 자기중심성 $\alpha = .76$, 협조성 $\alpha = .79$ 이었다.

3. 통계분석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간 상관분석을 하였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사고양식 유형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함께 사고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다.

Ⅲ. 결 과

1. 어머니의 사고양식과 양육효능감간의 상관

1) 사고양식 각 범주 내 하위요소에 대한 반응 경향성 분석

우선 사고양식을 단일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Sternberg, 1997)는 주장을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분석하기 위해, 사고양식 각 범주의 하위요소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에 있어 중첩적인 경향성 유무를 알아보았다. 즉, 응답자가 사고양식의 각 범주 내에서 하위요소들 중 하나의 요소만을 두드러지게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사고양식이 하나의 범주 내에서 상호 배타적인 범주적 분류가 가능한 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사고양식을 기능범주에서 파악한다면, 기능범주의 세 하위요소 중 완전히 어떤 하나의 특정 사고유형-예를 들어 입법부적 사고양식-만을 보이는지 아니면 다른 두 사고양식, 즉 사법적 사고양식과 행정부적 사고양식도 중첩적으로 지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범주 내 하위요소에서 모두 3점 이상(본 연구의 사고양식 척도가 5점 Likert 척도인데, 3점은 중간 혹은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이므로, 3점이면 특정 하위요소의 특성을 충분히 가진다고 보았음)을 반응한 사람들의 빈도와 비율을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많은 응답자가 사고양식의 각 범주내의 하위요소들에 대해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요소들에도 비슷한 정도의 반응을 보였다. 우선 기능범주의 세 하위요소에서 모두 3점 이상을 반응한 응답자의 빈도는 전체 227명중 193명으로 8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사고양식의

기능적인 범주에 있어서, 대부분의 각 어머니들이 하나의 고정된 특성의 유형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때에는 입법부적 사고양식을, 또 어떤 때에는 행정부적 사고양식을, 또 다른 어떤 때에는 사법부적 사고양식을 할 수 있는 등, 사고양식을 고루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반응형태는 다른 범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형태범주에서 4요소 모두에 3점 이상을 반응한 사람은 179명으로 79%의 비율을, 수준범주에서는 2 하위요소 모두에 3점을 보인 사람은 180명에 79%의 비율을, 영역범주에서는 159명에 70%의 비율을, 그리고 성향범주에서는 171명에 7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이들 범주 내에서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특정의 사고양식만이 아닌 다양한 사고양식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결과들은 대부분의 각 어머니들은 사고양식의 각 범주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사고양식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양식의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에 분석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1〉 사고양식 각 범주 내 모든 하위요소에 3점 이상을 반응한 응답자의 빈도와 비율

범주	기능	형태	수준	영역	성향
빈도	193명	179명	180명	159명	171명
비율	85%	79%	79%	70%	75%

사례수 227명

우리나라 어머니들 각 개인이 다양한 사고양

식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사고양식 하위요소들 간의 상관분석결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이들 사고양식 하위요소들간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수준범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주 내에서의 하위요소들간의 상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이는 이들 각 범주내의 하위요소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이 실제로 특정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은 하나의 사고양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양식 프로파일(profile)로 지니고 있으므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세상을 대한다는 Sternberg(1997)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2) 양육효능감과 사고양식간의 상관분석

우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전체적으로 볼 때 3.67(SD=.40)이라는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였다. 각 하위영역별로 보면 전반적 양육효능감이 3.49(SD=.49),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이 3.78(SD=.44), 의사소통능력이 3.81(SD=.44), 학습지도능력이 3.65(SD=.49), 훈육능력이 3.71(SD=.51)로 나타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양육에 대한 상당히 높은 자신감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고양식과 양육효능감간 상관분석 결과

사고양식	기 능			형 태				수 준		영 역		성 향		
	입법	행정	사법	군주	위계	과두	무정부	전체	지역	내부	외부	자유	보수	
사 고 양 식	입법	1.00												
	행정	.27	1.00											
	사법	.47	.38	1.00										
	군주	.23	.23	.34	1.00									
	위계	.54	.38	.50	.25	1.00								
	과두	.15	.13	.15	.05	.04	1.00							
	무정부	.23	.33	.31	.10	.20	.29	1.00						
	전체	.24	.21	.32	.13	.25	.12	.20	1.00					
	지역	.36	.34	.45	.28	.32	.21	.33	.07	1.00				
	내부	.46	.17	.24	.30	.27	.10	.10	.25	.32	1.00			
	외부	.15	.33	.35	.05	.25	.19	.40	.25	.22	-.21	1.00		
	자유	.57	.08	.46	.23	.39	.21	.24	.20	.39	.37	.11	1.00	
보수	-.05	.47	.08	.22	.01	.24	.18	.12	.17	.11	.13	-.29	1.00	
양 육 효 능 감	전반적양육	.30	.17	.25	.09	.32	.03	.16	.22	.22	.19	.15	.22	.06
	건강양육	.28	.14	.19	.05	.30	.04	.18	.12	.17	.10	.13	.23	.01
	의사소통	.29	.10	.21	.06	.36	.02	.14	.13	.17	.15	.09	.25	-.03
	학습지도	.36	.15	.25	.16	.43	-.05	.14	.16	.23	.27	.05	.28	.06
	훈육	.36	.11	.14	.20	.32	.08	.11	.00	.15	.18	-.02	.19	.09
	전체	.36	.16	.26	.12	.40	.03	.17	.17	.23	.21	.11	.28	.04

고딕체 p<.05

어머니의 사고양식과 양육효능감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고양식 13개 하위영역과 양육효능감 전체 및 하위요소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양육효능감 전체점수는 사고양식의 기능범주에서 입법부적($r=.36, p<.05$), 행정부적($r=.16, p<.05$), 사법부적($r=.26, p<.05$) 사고양식 모두와, 형태범주에서 위계적($r=.40, p<.05$) 및 무정부적($r=.17, p<.05$) 사고양식과, 수준범주에서 전체($r=.17, p<.05$) 및 지역($r=.23, p<.05$) 모두와, 영역범주에서는 내부적($r=.21, p<.05$) 사고양식과, 그리고 마지막 성향범주에서는 자유적($r=.28, p<.05$) 사고양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상관분석의 의미가 나타내주듯이, 이들 사고양식들과 양육효능감간에는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 이들 사고양식들의 정도가 클수록 양육효능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적, 사법적, 위계적, 지역적, 자유주의적 하위요소들은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표 2>에 사고양식 하위요소간 상관분석 및 양육효능감과 사고양식간의 상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3) 사고양식 유형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영향력

양육효능감에 대한 어머니의 사고양식유형의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고양식의 기능범주(입법, 사법, 행정)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들간에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그 하위요인들이 자신들의 사고양식유형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아울러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도 독립변인으로 함께 사용하였다. 부모의 연령(Fox, 1995), 교육수준(곽혜경, 조복희, 1999; Fox, 1995), 가정소득(문혁준,

1998) 등의 배경변인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로부터, 부모의 배경변인들이 부모의 양육효능감에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이들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어머니의 연령, 학력, 생활정도를 사고양식유형과 함께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사고양식 기능범주의 입법, 행정, 사법 하위요소와 어머니의 연령, 학력 및 생활정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F=7.98, df=6, 220$)가 나왔으며,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18%($R^2=.18$)이다. 특히 양육효능감 변량을 설명해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독립변인은 어머니의 입법적 사고양식($t=4.08$)과 학력($t=3.06$)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하위요인별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5개의 하위요인 모두에서 어머니의 입법부적 사고양식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 양육능력, $t=2.82(p<.05)$; 건강양육능력, $t=2.92(p<.05)$; 의사소통능력, $t=3.20(p<.05)$; 학습지도능력, $t=4.04(p<.05)$; 훈육능력, $t=5.23(p<.05)$]. 또한 훈육능력을 제외한 4개 하위영역에서 어머니의 학력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반적 양육능력, $t=2.67(p<.05)$; 건강양육능력, $t=2.08(p<.05)$; 의사소통능력, $t=2.87(p<.05)$; 학습지도능력, $t=3.63(p<.05)$].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가 지니는 입법부적 사고양식과 학력의 정도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3>에 사고양식 기능범주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양육효능감 전체점수와 하위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3〉 사고양식 기능범주와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양육효능감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Model 양육 효능감	R	R ²	교정R ²	ANOVA					예측변인의 회귀계수 검증				
				변량원	SS	df	MS	F	예측변수	B	SE(B)	β	t
양육 효능감 전체	.42	.18	.16	회귀 잔차	6.57	6	1.10	7.98*	입법	.22	.05	.29	4.08*
					30.18	220	.14		행정	.04	.05	.06	.85
									사법	.05	.06	.08	1.04
				전체	36.75	226		모연령	-.03	.07	-.03	-.41	
								생활정도	.006	.07	.01	.10	
								모학력	.16	.05	.20	3.06*	
전반적 양육 능력	.37	.14	.12	회귀 잔차	7.64	6	1.27	5.92*	입법	.19	.07	.20	2.82*
					47.30	220	.22		행정	.07	.06	.07	1.08
									사법	.10	.07	.10	1.40
				전체	54.94	226		모연령	-.06	.09	-.04	-.60	
								생활정도	-.05	.08	-.04	-.55	
								모학력	.17	.07	.18	2.67*	
건강 양육 능력	.32	.10	.08	회귀 잔차	4.42	6	.74	4.17*	입법	.18	.06	.22	2.92*
					38.78	220	.18		행정	.05	.06	.06	.90
									사법	.04	.06	.05	.67
				전체	43.20	226		모연령	-.02	.08	-.02	-.23	
								생활정도	-.01	.07	-.01	-.15	
								모학력	.12	.06	.14	2.08*	
의사 소통 능력	.36	.13	.10	회귀 잔차	5.58	6	.93	5.33*	입법	.20	.06	.23	3.20*
					38.42	220	.18		행정	.01	.06	.01	.11
									사법	.01	.06	.08	1.09
				전체	44.00	226		모연령	-.06	.08	-.04	-.68	
								생활정도	.04	.07	.03	.49	
								모학력	.17	.06	.19	2.87*	
학습 지도 능력	.44	.19	.17	회귀 잔차	10.73	6	1.79	8.85*	입법	.27	.07	.28	4.04*
					44.50	220	.20		행정	.04	.06	.05	.74
									사법	.06	.07	.07	.94
				전체	55.23	226		모연령	.03	.09	.02	.34	
								생활정도	-.01	.08	-.01	-.16	
								모학력	.23	.06	.23	3.63*	
훈육 능력	.38	.14	.12	회귀 잔차	8.36	6	1.39	6.08*	입법	.37	.07	.38	5.23*
					50.37	220	.23		행정	.03	.06	.04	.55
									사법	-.06	.07	-.06	-.78
				전체	58.73	226		모연령	-.02	.10	-.10	-.15	
								생활정도	.14	.08	.11	1.65	
								모학력	.06	.07	.06	.87	

*p<.05

어머니의 학력이 영향력 있는 설명변인이라는 결과로부터, 양육효능감이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어머니의 학력을 고졸이하와 전문대 이상으로 나누고 이들간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t-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훈육능력을 제외한 4개 하위영역(전반적 양육능력 $t=-3.40$, $df=225$; 건강양육능력 $t=-2.71$; 의사소통능력 $t=-3.41$; 학습지도능력 $t=-4.47$)과 양육효능감 전체($t=-3.76$)에서 어머니의 학력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4>에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효능감에 대한 t-검증 결과가 나타나 있다.

<표 4>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효능감 하위요소의 차이검증

	학력	평균	표준편차	t
전반적 양육능력	고졸이하	3.37	.52	-3.40*
	전문대이상	3.59	.45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고졸이하	3.70	.44	-2.71*
	전문대이상	3.86	.43	
의사소통능력	고졸이하	3.71	.44	-3.41*
	전문대이상	3.91	.42	
학습지도능력	고졸이하	3.50	.55	-4.47*
	전문대이상	3.78	.40	
훈육능력	고졸이하	3.67	.53	-1.19
	전문대이상	3.75	.49	
전체 양육효능감	고졸이하	3.57	.43	-3.76*
	전문대이상	3.76	.36	

* $p<.05$ 사례수(고졸 이하 : 106, 전문대 이상 : 121)

2.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어머니의 사고양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사회적 능

력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종래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방식이 아동의 사회성이나 사회적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았으나, 양육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인 양육효능감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을 살펴 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이들 두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r=.14$, $p<.05$)이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하위요인 중 사회활동요인이 양육효능감 전체점수($r=.14$, $p<.05$), 전반적 양육능력($r=.14$, $p<.05$) 및 훈육능력($r=.15$, $p<.05$)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표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분석

양육효능감 사회적 능력	전반 양육	건강 양육	의사 소통	학습 지도	훈육 능력	양육 효능감 (전체)
사회활동	.14	.07	.12	.11	.15	.14
과민성	.02	.03	-.04	.07	-.04	.01
안정성	.02	-.03	.01	.03	-.01	.01
자기중심	.06	.02	.03	.05	-.05	.04
협조성	.06	.01	.12	.08	.14	.09
사회적 능력 (전체)	.14	.06	.11	.15	.12	.14

고딕체 $p<.05$

또한 사회적 능력 중 협조성요인이 양육효능감 중 훈육능력과 유의미한 상관($r=.14$, $p<.05$)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 전체점수는 양육효능감 하위요인 중 전반적 양육능력($r=.14$, $p<.05$), 학습지도능력($r=.15$, $p<.05$)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상관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상관의 정도에 대한 실제적인 중요성(practical significance)에 있어서 는 다소 미흡한 크기이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

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표 5>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분석 결과가 나타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사고양식과 양육효능감이 어떠한 관계를 지니며,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그들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는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대구·경북 지역의 유치원 아동 227명과 그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효능감척도, 사고양식척도, 사회적 능력척도 질문지를 측정 도구로 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한다.

첫째, 어머니의 사고양식의 유형을 알아본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높은 비율의 어머니들이 각 범주 내의 모든 하위요소들에 중간 점수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또한 사고양식 각 범주 내의 하위요소간에 다소 높은 수준의 상관이 발견되었다는 결과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동일 범주 내의 사고양식 하위요소들에 대해 다소 중첩적인 반응형태를 보여, 중첩적인 사고양식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각 어머니들은 입법부적, 행정부적, 사법부적 사고양식 어느 하나에 전형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이들 세 영역의 특징적 사고유형을 모두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법부적 사고를 할 때도 있고 사법부적 사고양식에 근거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행정부적 사고양식으로 임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공간을 막론하고 특정 사고유형만을 고집하지 않는 사고양식의 유연성을 의미하며, 하나의 경직된 사고양

식만으로 세상을 대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사고양식을 다양하게 구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은 하나의 사고양식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양식 프로파일(profile)로 지니고 있으므로, 시간과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갖고 세상을 대한다는 Sternberg (1997)의 주장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 사고양식 각 범주내의 하위요소에 대한 대부분의 각 어머니의 반응이 특정적 하위요소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유형이 아닌 다양한 반응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개인의 사고양식을 분류함에 있어서 누구는 입법부적 사고양식이고, 누구는 사법부적 사고양식이라는 식의 상호배타적 범주분류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해준다.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의 사고양식을 분류할 때, 각 하위영역을 하나의 차원으로 간주하여 이들 각 차원, 즉 각 하위양식에 있어서 개인이 어느 만큼 정도(degree)의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식의 분류를 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훨씬 호소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특정 심리적 구성개념의 하위요소를 하나의 차원으로 간주하여 해석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은 본 연구의 사고양식뿐만 아니라 동기와 창의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최근의 동기 관련연구들에서도 비슷하게 주장되고 있다(Collins & Amabile, 1999).

둘째, 어머니의 사고양식과 양육효능감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기능범주(입법, 사법, 행정)의 사고양식 하위요소 모두와, 형식범주의 위계 및 무정부적 사고양식과, 수준범주의 두 양식(전체 및 지역) 모두와, 그리고 내부지향적 사고양식과 자유주의적 사고양식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입법부적이거나 위계적이거나 자유적인 사고양식을 지니고 있을 때 높은 양육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 규칙을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을 선호하고, 가능성을 상상하거나, 짜여진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무엇을 창조·창안·계획하고(입법부적 사고양식), 일의 우선 순위와 중요성을 설정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위계적 사고양식), 그러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는(자유주의적 사고양식), 다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유형이 이들의 양육효능감을 증진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양육효능감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고양식유형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양육효능감에 대한 변량은 어머니의 사고양식이 입법부적일 때 가장 많이 설명되었으며, 학력변인이 뒤를 따른다. 즉, 어머니가 짜여진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창조, 창안 계획하는 능력이 높을수록(입법부적 사고양식) 또한 고학력자일수록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 높은 자신감을 지닌다고 하겠다.

학력에 따른 양육행동이나 양육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곽혜경, 조복희, 1999; Fox, 1995)들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양육효능감에 있어서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고학력의 어머니들이 아마 보다 긴 학교교육의 기간 속에 접하게 되는 교과과정을 통해 양육

에 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음으로 인해 양육효능감도 증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한 양육효능감이 일반적 자아효능감을 양육의 측면으로 접근한 것이라면, 다른 분야에서 높은 자아효능감을 지닌 경향(예를 들어, 학문적 자아효능감은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높을 것이다)이 양육효능감에도 공유되어 학력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 양육효능에 대한 인지가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서는 이들 변인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양육효능감을 지닌 부모는 자녀의 발달과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Dorsey, 1999)와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방법이 아동의 생활능력(노현미, 박인전, 1999)이나 사회적 능력(이영환, 백지은, 1998) 및 사회심리적 적응(Rodrique, Geffken, Clark, Hunt, & Fishel, 1994)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또한 Bogenschneider, Small, & Tsay(1997)이나 Elder, Eccles, Ardel, & Lord(1995)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양육효능감이 높다고 판단하는 어머니는 자식들에 대해 훨씬 반응적, 장려적이며 예방적인 양육전략을 사용한 결과로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데(Coleman & Karrake, 1977; Dumka, et al, 1996; 최형성, 2001, 재인용), 부모의 이러한 대인관계 기술이 자녀에게 모델링으로 작용하여 자녀들 역시 사회적 기술이 높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변인들간의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의 하나인 양육행동에 대한 행동적 측면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양육행동의 선행단계라 할 수 있는 양육행동의 인지적 측면인 자신감에 대한 판단과 기대를 설명변인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므로 양육에 대한 능력지각 혹은 기대(즉, 양육능력에 대한 인지적 판단) 변인과 함께 실제 양육행동의 측면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훨씬 설명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인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을 외생변인으로, 양육행동을 내생변인으로 하고 그 사이에 부모효능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이들의

관계를 분석한 신숙재, 정문자(1998) 연구의 개념적 모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양육효능감의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명력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양육효능감 사이에 중재 혹은 매개 변인으로서 양육효능감에 따른 양육행동 변인을 삽입함으로써 보다 나은 모형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유치원생 어머니들의 사고양식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하게 표현되며, 이들 사고양식은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곽혜경, 조복희(199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 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1), 165-176.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 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현미, 박인전(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0(4), 231-245.
- 문혁준(1998).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에 관련된 생태학적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1), 91-101.
- 박아청(1997). *현대의 교육심리학(3판)*. 서울: 학문사.
- 신숙재, 정문자(1998).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9(1), 27-42.
- 윤미선(1997). 사고양식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Sternberg의 정신자치제 이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환, 백지은(1998).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애착, 사회적 능력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5, 1-28.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llen, C.(1993). An investigation of parenting efficacy.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 Bandura, A.(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Y.: Freeman & Company.
- Borgensneider, K., Small, S. A., & Tsay, J. C.(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 345-362.
- Bornstein, M. H., Haynes, M., Azuma, H., Galperin,

- C., Maital, S., Ogino, M., Painter, K., Pascual, L., Pecheux, M., Rahn, C., Toda, S., Venuti, P., Vyt, A., & Wright, B.(1998). A cross-national study of self-evaluations and attributions in parenting : Argentina, Belgium, France, Israel,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evelopmental Psychology*, 34(4), 662-676.
- Cantor, N., & Kihlstrom, J. F.(1987). *Personality and social intelligence*.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ollins, M. A., & Amabile, T. M.(1999). Motivation and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pp. 297-3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rsey, S.(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self-agen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Elder, G. H., Eccles, J. S., Ardel, M.(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 Perspective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771-784
- Ferrari, M., & Sternberg, R. J. (1998). The development of mental abilities and styles. In W. Damon & D. Kuhn & R. S. Siegler(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Vol. 2. Cognition, perception, and language*(pp. 899-946).
- Ford, M. E.(1982). Social cognition and social competence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23-340.
- Fox, R.(1995). Maternal factors related to parenting practices, developmental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of chil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 434-441.
- Gondoli, D. M., & Silverberg, S. B.(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Grigorenko, E. L., & Sternberg, R. J.(1995). Thinking styles. In D. Saklofske & M. Zeidner(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personality and intelligence*(pp. 205-229). NY : Plenum.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 Kagan, J.(1965). Impulsive and reflective children. In *Learning and the educational process*. Chicago, Rand McNally.
- Messick, S.(1994). The matter of style : Manifestations of personality in cognition, learning, and teach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9, 121-136.
- Rodrique, J. R., Geffken, G. R., Clark, I. E., Hunt, F., & Fishel, P.(1994).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among caregivers of children with diabetes. *Children's Health Care*, 23, 181-191.
- Royce, J. R., & Powell, A.(1983). *Theory of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 Factor, systems, and processe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 Scheel, M. J., & Rieckmann, T.(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chaefer, E., Bell, R., & Bayley, N.(1959). Development of a maternal behavior :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 Sternberg, R. J.(1997). *Thinking Styles*.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Sternberg, R. J., & Grigorenko, E. L.(1993). Thinking styles and the gifted. *Roeper Review*, 16(2), 122-130.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Witkin, H. A., & Goodenough, D. R.(1977). Field dependence and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84, 661-689.